

March 22 화평하게 하는 자, 생명의 살림꾼

• 마태복음 5:9; 창세기 2:15, 19

이 세상에 완벽한 공평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자신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인간은 결코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정의로 시작하여 정의로 끝나면, 잔혹한 비극이 발생합니다. 정의가 사랑으로 채워져야 평화가 옵니다. 그렇다고 아무 문제 없는 것이 평화는 아닙니다. 잔잔한 호수라도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 곧 물결이 일고 파장이 멀리까지 퍼집니다. 세상은 전쟁이나 갈등 여부에 따라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휴전은 일촉즉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으로 제압된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는 위장된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은 '새로운 관계의 평화'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봅니다. 그들은 갈등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떠올립니다.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구조 자체에 대한 원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약육강식, 경쟁, 힘과 돈의 논리로 상황을 이끌어 갑니다. 소유와 소속, 계층과 직책으로 이름을 대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가 함께 하되 분열과 경쟁 없이 조화와 화목을 누리는 참 살림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 1:31).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창조의 동역자로 부르시며 각자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현장에 속한 모든 사람이 각각 제자리에서 존재와 가치를 존중받으며, 가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생명 살림'을 시작해야 합니다(창 2:15, 19). 서로 '이름'을 불러 주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마 5:9, 《메시지》 성경).

나는 새 창조의 동역자로
살고 있습니까?

- ① 갈등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떠올리니까?
- ② 새 창조의 동역자, 생명의 살림꾼으로 일하고 있습니까?